

아시아의 방송 공동제작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 방통위, 「2023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몽골 등 참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9월 21일(목)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지역을 통해 세계를 내다보다: 아시아의 스토리를 세계와 공유하다 (Local Insights, Global Outlooks: Sharing Asian Stories with the World)’라는 주제로 「2023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IBCC,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production Conference, 2023)」를 개최한다.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는 국가 간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K-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콘퍼런스는 기조연설, 주빈국 특별세션과 아시아 세션,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2023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 시상 및 수상작 발표로 구성되며, 기조연설은 박정훈 에스비에스(SBS) 사장이 참석하여 ‘한류의 현지화를 통한 SBS 공동제작 전략’을 발표한다.

주빈국 특별세션에서는 올해로 한국과 수교 50년을 맞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며,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우바이딜라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모하마드 레자 부위원장과 민영방송협회 길랑 이스칸다르 사무총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주빈국 특별세션 마지막에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대신하여 요하네스 에카프라세트야 탄쥁 박사가 참석하여 ‘K웨이브에서 I웨이브로 : 한-인도네시아 50년 우호 관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아시아 세션 1에서는 임정수 교수(서울여대)의 진행으로 미카 카나야 (일본, NHK 국제 콘텐츠 개발 책임자)가 ‘아시아와 일본 간 국제 공동제작 40년 :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를, 니니 빈티 유소프(말레이시아, 미디어프리마 스튜디오 CEO)가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위한 글로벌 공동제작’을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정윤경 교수(순천향대)가 진행을 맡은 아시아 세션 2에서는 다나삭 후나락 (태국, 워크포인트 그룹 최고사업개발책임자)이 ‘아시아 국가 간 공동제작의 장점 및 각국의 시장에 맞는 공동제작 방안’을, 누옌 민 하(베트남, VTV PD)가 ‘공동제작, VTV 콘텐츠 다양성의 핵심’을, 에캄빌레그 바타르수렌(몽골, NTV방송 제작 책임자)이 ‘미디어 콘텐츠 공동제작 : 몽골·한국·아시아를 연합하다’를 발표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

이어 올해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 수상자들*이 그간의 제작 과정과 경험담 등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국내·외 공동제작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 공동제작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

* (대상) 삭힘의 미학 시리즈, 목포문화방송 / (최우수상) 티시태시, (주)스튜디오게일 / (우수상) 이타카로 가는 길, 바심미디어

이상인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케이(K)-콘텐츠는 ‘재미있고 완성도 높은(웰메이드)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신 자랑스러운 결과물이다. 오늘의 콘퍼런스도 공동제작 방송 콘텐츠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 공동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통위도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 간 공동제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콘퍼런스 세부 일정 확인과 사전등록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ibcc.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붙임 : 「2023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프로그램.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영주 (02-2110-1331)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지혜 (02-2110-1358)

사회 : 라용란 아나운서

시간	프로그램	연사
개막식		
10:00~10:40	개회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환영사	배경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2023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 시상	대상 「삭힘의 미학」 시리즈 (목포문화방송) 최우수상 티시태시 ((주)스튜디오게일) 우수상 이타카로 가는 길 (바심미디어)
	기념사진 촬영	
기조연설		
10:40~11:00	한류의 현지화를 통한 SBS 공동제작 전략	박정훈 SBS 사장
<< 주빈국 특별세션 : 인도네시아 >>		
11:00~12:00	축사	우바이딜라 (Ubaidillah)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위원장 (인도네시아)
	K웨이브에서 I웨이브로 : 한-인도네시아 50년 우호 관계	요하네스 에카프라세트야 탄짱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사참사관
	인도네시아의 방송 정책과 국제 협력 증진	모하마드 레자 (Mohamad Reza)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부위원장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텔레비전 산업과 협력하는 프로그램 공동제작의 기회	길랑 이스칸다르 (Gilang Iskandar) 민영텔레비전협회(ATVSI)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12:00~13:00	점심 시간	

아시아 국가 세션 I (일본, 말레이시아)

13:00 ~ 13:50	아시아와 일본 간 국제 공동제작 40년 :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미카 카나야 (Mika Kanaya) NHK, Head of International Content Development Center (일본)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위한 글로벌 공동제작	니니 빈티 유소프 (Nini B. Yusof) Media Prima TV Networks, CEO (말레이시아)
	토론	좌장: 임정수 교수(서울여대), 토론자 2인

아시아 국가 세션 II (태국, 베트남, 몽골)

13:50 ~ 15:00	아시아 국가간 공동제작의 장점 및 각국의 시장에 맞는 공동제작 방안	다나삭 후나락 (Dhanasak Hoonarak) Workpoint Group, Chief Business Development Officer (태국)
	공동제작 - VTV 콘텐츠 다양성의 핵심	누옌 민 하 (Nguyen Minh Ha) VTV, TV Producer/Project Manager (베트남)
	미디어 콘텐츠 공동제작 : 몽골·한국·아시아를 연합하다	에캄빌레그 바타르수렌 (Erkhembileg Baatarsuren) NTV Broadcasting, Head of Production Dept. (몽골)
	토론	좌장: 정윤경 교수(순천향대), 토론자 3인

15:00 ~ 15:20 휴식 시간

2023 해외 우수 공동제작 수상작 발표 세션

15:20 ~ 16:00	대상, <삭힘의 미학> 시리즈	김 윤 상 목포MBC 편성제작부장, PD (한국)
	최우수상, <티시태시>	신 창 환 ㈜스튜디오게일 대표 (한국)
	우수상, <이타카로 가는 길>	이 미 진 바심미디어 PD (한국)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16:00 ~ 17:00	글로벌 호소력을 가진 아시아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좌장: 노동렬 교수(성신여대) 토론자: 국내외 5인 - 요시미츠 나오히라 (Yoshimitsu Naohara, MBS 해외사업부장, 일본) - 칸 라이 킹 (Kan Lai Keong, Media Prima TV Networks, 사업개발 및 디지털 부장, 말레이시아) - 박 여 주 에이스토리 글로벌사업팀 팀장 - 이 성 민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정 재 응 EBS 협력제작부 부장
---------------	--	--